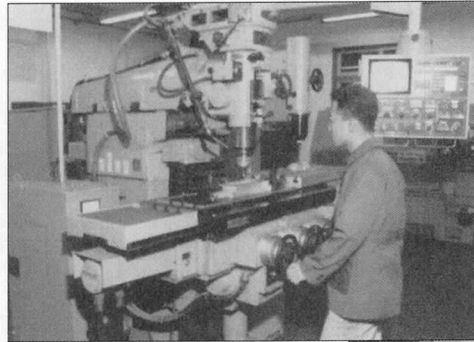


# 출판인 재교육 사회 밖으로 눈돌리면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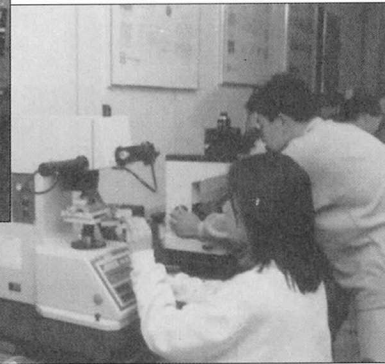
## 노동부·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활용해야

지식문화산업의 총아인 출판에서 사람의 힘은 무엇보다 중시된다. 출판사마다 능력을 발휘할 기획·편집·영업·관리자를 육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그러나 훈련방식은 책상물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비교적 열악한 출판사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재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출판과 직접 연관된 프로그램은 많지 않아도 일반기업의 경영논리를 원용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에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한 과정들.



교육은 투자다. 그러나 좀더 효과적인 투자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경영이다. 자체교육이든 위탁교육이든 일정 비용은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고용보험을 이용하면 비용절감 차원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 위탁교육기관 이용하면 비용 저렴

최근 4인 이하 사업장, 즉 사실상 모든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기왕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는 교육을 받을 경우 회사별로 보험료의 1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환원성 보험이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한 출판사 일원이 노동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보험료의 1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을 받고 수료증에 영수증을 첨부해 신고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출판계는 대체로 60% 정도의 비용을 1개월 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 노동부(www.work.net) 산하 중부지방노동사무소 윤경의 상담원은 "현재 관할지역 내에 7백여 위탁교육기관이 있고 전국적으로 수천 곳 넘는다. 프로그램도 다양한 만큼 얼마든지 선택해 저렴한 비용으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위탁 교육프로그램 가운데 출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정보통신·디자인응용·전자출판·사무관리·서비스응용 분야를 들 수 있다. 경영진단부터 정보검색·사이버몰·일러스트·시장조사기법 등 다양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sbti.smipc.or.kr)이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꼼꼼히 살펴볼 만하다. 경영자를 위한 경영관리연수부터 컴퓨터·마케팅·재무관리·조직인사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마케팅의 영업관리실무·마케팅전략·시장

중심영업전략·영업사원능력개발 등과 재무관리의 기획관리·세무회계·경리실무 등이 눈에 띈다.

한국능률협회(www.kma.or.kr)에서 운영하는 경영컨설팅·유통경영전문가·정보검색사 과정과 생산성본부(www.kpc.or.kr)는 경영진단·정보검색·사이버몰 등의 프로그램이 유효하다. 생산성본부 임리정 위원은 "교육범위가 매우 넓어 출판계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정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일반기업의 경영마인드나 컴퓨터 교육 등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출판사 관리시스템 수준 이하

출판사 나름대로 재교육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 매킨토시를 이용한 편집기술을 도입할 때 많은 출판사들이 재교육에 투자한 것이 좋은 예다. 현암사의 경우 매킨토시는 16개월, 기타 프로그램은 외부 강사를 초빙해 2개월 가량 교육을 받았다. 창작과비평사도 이에 버금가는 시간을 투자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교육에 투자하는 데 인색하다. 한 대형출판사의 영업자는 "영업자끼리 모여 일년에 한 두번 1박2일 자체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자의 이해부족으로 많은 영업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한국능률협회 직업전환팀 서동우 상담원은 "얼마전 출판기획 전문가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그러나 단 한사람도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교육에 무관심한 출판계의 현주소를 대변하는 말이다. 그는 "대형출판사에 특강을 나갈 때마다 관리시스템과 전반적인

인프라가 뒤떨어진 것을 목격할 수 있다. 한마디로 다른 비즈니스업체보다 의식수준이 한참 낮다"고 피력했다. 지금도 유사 프로그램이 있지만 출판사에 적을 두고 교육을 받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김희수 실장은 그 원인을 경영자의 의식부재를 먼저 꼽으며 "경영혁신을 꾀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고경영자가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산성본부 임리정 위원은 "이제는 출판사도 일반기업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영업사원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울림출판사(대표 송주환) 영업사원 김영석씨는 "출판영업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많은 도움이 됐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부터 일반기업의 영업논리까지 출판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소감을 밝혔다.

### 미래를 위한 투자 나설 때

위탁교육이 전부는 아니다. 출판은 지식산업인 만큼 고도로 집약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책상물림을 통한 교육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출판도 경영이라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내적인 교육만으로 경쟁시대를 돌파해나갈 힘은 부족하다. 이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좀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외부의 과학적 노하우도 고려해야 한다. 한울림출판사 송주환 대표는 "출판사가 기획만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시대는 지났다. 일반기업의 경영원리를 응용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출판사의 특수성을 감안한 과정 선택도 중요하다. 현암사 현난옥 주장은 "출판사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은 거의 없다. 출판단체가 출판사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의 힘을 중시하는 출판계에서 인재개발과 육성을 위해 투자할 때다. 더욱 출판사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운용할 때다. 외부의 힘을 빌릴 수 있다면 적극 원용할 필요도 있다. 21세기 지식산업을 선도할 출판의 힘을 지금부터라도 길러야 하기 때문이다. —오완진 기자

### <고용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교육단체	연수과정	분야	교육내용
노동부 www.work.net	가상능력개발	정보통신 전자출판 사무관리	일러스트/복디자인/플래쉬애니메이션/포토샵 등 광고디자인/웹프로그래머/컴퓨터그래픽스 등 시장조사기법/일반관리/서비스응용 등
중소기업진흥공단 sbti.smipc.or.kr	경영관리연수	경영일반 마케팅 재무경리 조직인사	고급관리자/일반사원교육/자기실천/고객만족 등 영업관리실무/마케팅전략/영업사원능력개발 등 기획관리/세무회계/경리실무(초·중급) 등 문서관리와 업무개선/조직행동관리 등
한국능률협회 www.kma.or.kr	경영컨설팅 유통경영전문 정보검색		인사조직관리/원가관리/경영컨설팅 등 마케팅전략/유통일반/물류관리시스템 등 인터넷실무/웹서버관리/정보검색 등
생산성본부 www.kpc.or.kr			경영실무/경영진단/정보검색/사이버몰 등